

<b>G10 Q1-②,③ 고려-조선 라디오스타 계획서</b>	강미정 선생님 <b>mjkang@kis.ac</b>
-----------------------------------	------------------------------

단원명	Ⅱ-1. 고려의 성립과 정치 발전 / Ⅲ-1.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Ⅲ-2. 양 난과 조선 후기의 정치	<b>10학년 D반</b>  송지민, 김태성, 장은수, 최준용
활동 목표	고려와 조선의 대표 인물을 비교·분석하여 각 시대의 정치적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단계별 주의 사항 & 평가 요소**

일시	진행 단계	평가요소
1 10/29	주제 연구 & 계획서 작성	1) 구글 드라이브 열기 - 선생님 공유 2) 역할 분담 - 1인 1역 이상 D-Communicate (논의는 화기애애하게, 진행은 일사천리로)
	개별 대본 작성	1) 역할, 주제에 따라 작성하기 2) 분량 조절해가며 작성하기 내용이해도, 완성도, (주제를 자연스럽게 쓰되 분량 조절하기)
2 11/4	개별 대본 검사	수업 초반에 PDF 파일로 제출 (검사) D-Responsibly
	모둠 대본 및 발표 준비	1) 모둠 대본 완성 2) 음악 준비 완성도, D-Collaborate (역할에 충실하기, 완성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3 11/17	발표	1) 10분간 최종 점검 2) 발표 시간 : 최대 10분 3) 경청학습지 작성하며 듣기 표현의 적절성, 완성도 D-Communicate, D-Collaborate (적절한 어조, 자연스러운 진행, 리액션)

**2. 역할 나누기**

- 중심인물, 데자뷰 인물, 주변 인물(중심 인물과 관련된 역사 인물을 찾아 배치합니다.)
- 필수 내용에 들어갈 내용을 참고하시고 개별 대본을 작성해 주세요.
- 키워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게 나누기!

역할	역사인물	담당자	키워드	필수 내용	역할 체크
DJ	공민왕, 정조	송지민	개혁, 공민왕, 정조	<b>시대적 배경 소개하기 +오프닝 멘트&amp;전체적 진행</b>  EX. 시작은 언제나 설레고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고려와 조선의 건국의 설레임과 함께하는 오늘의 광광 라디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구글 드라이브 관리자/ 전체 대본 조율

보조 진행	공민왕, 정 조	최준용	원나라, 쌍성총관부, 철령 이북, 노론, 탕평책,	주제 인물 차이점 비교, 청취자 퀴즈 1문제 (퀴즈 진행)  ex. 왕건의 부인의 수에서 이성계의 부인의 수를 빼면 몇일까요? 정답 남겨주신 분께는 '아, 너도 나처럼 부인 많이 들 수 있어' 구독권을 드립니다.	DJ와 함께 대본 조율
게스트	공민왕	장은수	희망,	역사인물 소개,  DJ와 대화하기 (전체적 진행함께 하기) + 노래개사요일 코너 (신청곡 불러드려요._필요한 부분만 부르기)	
청취자 사연 (1)	정조	김태성	탕평책, 통공정책, 왕권강화, 서얼출신 등용, 사도 세자, 영조, 혜경궁 흥씨	주제 인물 공통점, 편지 형식 (5줄 이내)  사연과 어울리는 신청곡 (필요한 부분만 재생)  EX. 왕건과 이성계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 왕이 되셨는데 두분이 돌아가신 후 아들들의 싸움이 장난아니었잖아요~ 저도 아들이 많은데 싸울때마다 울고싶던데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청곡 : 술이 문제야 (나 맨정신에 살 수 없어서 술 한잔했어요. 나 제정신에 살 수 없어서 술 한잔했어요)	노래는 주제와 어울리는 가사를 찾아 찾기
청취자 사연 (2)	공민왕	장은수	신돈, 반원정책, 노국 공주, 전민변정도감, 원나라	주제 인물 공통점, 편지 형식 (5줄 이내)  사연과 어울리는 신청곡 (필요한 부분만 재생)  EX. 왕건과 이성계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 왕이 되셨는데 두분이 돌아가신 후 아들들의 싸움이 장난아니었잖아요~ 저도 아들이 많은데 싸울때마다 울고싶던데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청곡 : 술이 문제야 (나 맨정신에 살 수 없어서 술 한잔했어요. 나 제정신에 살 수 없어서 술 한잔했어요)	
엔지 니어	X	X	X	그 시대 가장 핫이슈였던 사건 소개 광고 (짧은 광고 패러디)  ex. 야놀자 광고  왕건은 호족과, 성계는 급진파, 초대박 나라라라라라라함께 세웠네!	음악 파일 찾기  + 부분 편집,  + 키노트에 노래 가사 띄우기

### 3. 주제 연구 (고려 '공민왕' VS 조선 '정조')

①	공통점 찾기	㉠ 공민왕이 친원파를 청산하기 위해 개혁을 펼쳤고 정조도 노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개혁을 펼쳤다.
		㉡ 유년 시절의 아픔을 내딛고 나라를 바로세우려는 목표를 가졌다.
②	차이점 찾기	㉠ 공민왕은 원나라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고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지만, 정조는 청나라와 싸우지 않고 내정에 집중하였다.
		㉡ 공민왕은 예술과 음악에 조예를 보였고 정조는 공학이나 유학에 뛰어났다.

### 4. 시놉시스 작성 - 라디오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기획해 보세요.

- 오프닝, 출연진 소개, 코너, 청취자 참여, 광고 등을 자연스럽게 배치합니다.

라디오 제목	열한시 사십오분은 오찬시간		
장르 (분위기)	드라마 / 코믹, 예능 / 시사.다큐,교양 / 음악 방송 /		
비장의 무기			
#1 오프닝	#2: 사연 (1)	#3: 사연 (2)	#4: 게스트
소개 배경 설명	공민왕 사연	정조 사연	노래: This Is Me
#5: 퀴즈	#6: 클로징	#7	#8

공민왕과 정조의 정책적 차이점에 대한 퀴즈 진행	마무리 멘트		
----------------------------	--------	--	--

### 5. 주제 확인하기

-키워드가 골고루 들어가게 대본을 작성해주세요.

-주변 인물은 참고하시고, 그 외 인물들도 등장 가능합니다.

주제 인물	핵심내용	키워드	주변인물
고려 광종 vs 조선 태종 (교과서 64/ 108)	국가 기틀 마련을 위한 정책  /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	노비안검법 / 과거제 / 호족속청 / 칭제건원	노비A, 쌍기, 호족
		왕자의 난 / 호패법 / 사병 철폐 / 6조직계제	정도전, 세종, 영의정
고려 이자겸 vs 조선 한명회 (교과서 68-69/ 112-113)	고려 문벌귀족사회의 동요  / 조선 훈구세력의 형성과 사회	문벌귀족 / 이자겸의 난 / 묘청 / 인종	이자겸의 딸들, 척준경, 김부식
		훈구파 / 사림 / 사화 / 동인과 서인	세조, 김종직, 연산군
고려 성종 vs 조선 성종 (교과서 64-67/ 108-110)	고려와 조선의 체제 정비	최승로의 시무28조 / 2성6부 관제 /  12목 지방관파견 / 국자감 설치	최승로, 서희
		중앙정치기구 (의정부,6조) / 경국대전 /  3사 확립/ 각종 편찬사업	3사 관리, 서거정
고려 기황후 vs 조선 장희빈	원 간섭기의 고려 /  붕당 정치 변질 속의 조선	권문세족 / 원의 내정간섭 / 몽골풍/ 충선왕의 개혁	기철, 고려왕, 몽골황제, 고려백성

(교과서 75/ 123-124)		노론 / 숙종 / 봉당정치 / 환국	서인, 남인, 인현왕후
고려 공민왕 vs 조선 정조  (교과서 76/ 교과서 125)	공민왕의 반원개혁  / 정조의 개혁 정책	쌍성총관부 / 반원정책 / 왕권강화정책/ 신돈	노국공주, 고려백성
		탕평책 / 통공정책  / 왕권강화정책/ 서얼출신 등용	영조, 사도세자, 상인, 박제가 등 서얼 출신

## 6. 대본 작성 예시

- **PD 친구들이 대본 쓸 수 있는 표를 만들어주세요.**
- 시놉시스에 따라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본을 작성하세요.
- 해당 칸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자신의 대사외에 흐름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다른 출연자의 대사도 함께 적어보세요.(발표에서 친구들이 그 대사를 할 수 있도록 )
- 모듬 대본 작성 시 전체적인 흐름은 DJ 대사를 중심으로 잡아갈 예정입니다.
- 1인 1분 30초 정도의 분량을 고려하세요.

10D 미정,민희,윤주, 준역	주제 : 고려 태조 <b>VS</b> 조선 태조	참고 (구성)
	라디오 제목 : DJ왕건의 “태조의 희망곡(태희)”	
DJ/왕건 (미정)	(오프닝 음악이 흐르다 잠시 멈추며) DJ: 시작은 언제나 설레고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고려와 조선의 건국의 설레임과 함께하는여러분의 “태희”~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 .. ... ..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프닝/ 호족통합책
보조진행/이성계(민희)	DJ: 자, 오늘도 제 옆에는 이성계님 나와주셨는데요. (자연스러운 대화 연결을 위해 본인 외 다른 사람의 대사도 적어보세요.)  이성계 : 안녕하세요, 위화도에서 열심히 말달려 도착한 이성계입니다. ... .. DJ: 자, 오늘은 어떤 퀴즈가? 이성계 : 왕건의 부인의 수에서 이성계의 부인의 수를 빼면 몇일까요? 정답 남겨주신 분께는 '야, 너도 나처럼 부인 많이 둘 수 있어' 구독권을 드립니다.  (+시놉시스에 따라 라디오 중반부 혹은 후반부에 정답자 공개한다 예상하고 그	퀴즈/ 왕자의 난

	부분도 대본에 미리 써두기)	
게스트/정몽주(윤주)	<p>DJ: 저 멀리 지하 세계에서 편지가 한통 도착했네요. 그분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 볼게요.</p> <p>정몽주 :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선죽교에서 머리에 철퇴를 맞고 사망한 정몽주입니다. <u>총맛은 것처럼</u> 정신이 없어 눈을 감으면서도 <u>그저 웃음만 나왔던</u> 그날이 생각 나네요. <u>구멍 난 가슴에</u> 고려의 <u>추억이 가득 흘러 넘치는</u> 백골이 된 저는 님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p> <p>DJ: 정몽주님의 신청곡 백지영의 총맛은 것처럼 듣고 오셨습니다.~</p>	사연/ 과전법
광고/정 도전(준역)	<p>DJ: 광고 듣고 오실게요. 광고 나오고..</p> <p>DJ: 마지막 인사 멘트까지 작성</p>	광고/ 송유억불

-----

고려-조선 라디오스타 대본

[10 - D반 모듬원 : (송지민, 최준용, 김태성, 장은수)] 주제 : (고려 공민왕 vs 조선 정조)

10D 송지민, 장은수, 김태성, 최준용	주제 : 고려 공민왕 VS 조선 정조	참고 (구성)
	라디오 제목: 열한시 사십오분은 오찬시간	
DJ	<p>(#1 노래 틀고 시작)</p> <p>DJ: 아픔은 누구나 있기 마련이고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여주는게 인생 아닐까요?</p> <p>이 희망찬 성장 이야기는 우리 모두, 그러니깐 고려와 조선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는거죠. 고려와 조선에는 공민왕과 정조가 유명한거 다들 아시죠? 유년 시절의 아픔을 내딛고 나라를 일으켜세운 위인들... 목소리라도 들어보고 싶네요.</p> <p>여러분, '개혁'의 정의를 아시나요? 개혁은 제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행동을 뜻하는데 이 개혁은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때로는 부정적으로도 흘러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까 언급했던 그 분들, 공민왕과 정조는 자주성이 있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아낌 없이 해결방안을 던졌습니다. 공민왕 반원 개혁을 펼치며 친원파를 청산하였고 정조도 노론 세력을 견제하였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마음 속에 새기며...</p> <p>지금, 여러분의 10분을 책임질 '열한시 사십오분은 오찬시간' 시작합니다.</p>	오프닝/ 배경 소개  (노래: butterfly)

<p>게스트 1: 공민왕</p>	<p><b>DJ:</b> 일단! 고려에서 온 게스트 분 먼저 맞이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p> <p>공민왕: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에서 온 공민왕 왕전이라고 합니다.</p> <p><b>DJ:</b> 어머... 공민왕이요? 저 팬이에요!!</p> <p>공민왕: 하하, 다들 그런 반응이지요.</p> <p>보조진행(준용): 이렇게 용안을 보니 완전 실물파이시네요!! 오늘 저희 열한시 사십오분은 오찬시간, 이렇게 친히 걸음해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p> <p><b>(#2 노래)</b></p> <p>공민왕: 네, 그게, 제 얘기 대충은 들어보셨겠죠?</p> <p><b>DJ:</b> 그럼요! 완전 팬이라 잘 알죠! 태어났을 시기의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 돼 있었고, 그게 고려가 원나라의 황실과 사돈 관계였던 시기죠?</p> <p><b>(슬라이드 2)</b></p> <p>공민왕: 맞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부터 원나라의 볼모로 가 있어 스무살의 옛된 나이에 원의 노국공주와 정략혼인을 맺었었죠. 제가 즉위 초반부터 왕권강화 정책을 시행하여 친원파와 권문세족의 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때도 그녀는 늘 제 옆에 있어주었습니다.</p> <p><b>DJ:</b> 네...그럼요 워낙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이루셨잖아요. 곁에 왕비님이 끝까지 같이 계셔주셨다면 더 좋았을텐데...</p> <p>공민왕: 그러게요...그 이후 제가 사랑하는 제 하나뿐인 왕비 노국공주가 임신을 하게됐어요. 전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출산 중 난산으로 인해 그만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일이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만 해도 그녀가 제 곁에서 숨 쉬고 있는 것만 같네요. 하아...그녀의 초상화까지 그려 식사도 같이 하고 해봐도 도무지 잊혀지지 않아요. 이대로 스스로가 고려의 왕이 될 수 없다 생각하며 현재는 모든 전권을 제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승려 신돈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지금은 노국공주의 영전 건설에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고려의 백성들이 그닥 행복해보지인 않더군요.</p> <p>보조진행(준용): 저런...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상심이 크시겠어요. 고려의 왕으로서 잘 짚고 일어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p>	<p>공민왕의 이야기: 개혁을 위해 이룬 것들/추진한 정책들, 노국공주의 죽음</p> <p>(노래: 오혁 - 소녀)</p>
<p>사연 2: 정조</p>	<p><b>DJ:</b> 네 이렇게 공민왕을 만나봤구요~ 이번 코너는 전화사서함으로</p>	

	<p>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보세요~?</p> <p><b>(#3 노래) (슬라이드 3)</b></p> <p>정조 (태성): 저는 현재 조선에 살고 있는 35살 정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터 글 쓰기에 재능이 있어 성균관에도 입학하고, 글 쓰는 공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 쓰는 걸로 극찬을 받는 걸로는 어렸을 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는 절 두고 떠났고, 저의 아버지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가 처형하셨죠.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뒤주에 가둬 죽게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은 '노론'이라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론을 누르고 위해 탕평책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탕평책을 계기로 노론을 몰아내고, 왕위에도 오르고, 현재 아내와 아이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p> <p>보조진행(준용): 어린 나이 부터 아버지를 잃고 정말 안됐네요~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p>	<p>(노래: 아이유- love poem)</p>
<p>게스트</p>	<p>DJ: 네, 이렇게 두 사연 함께 들어봤는데요,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두 사연에 깊이 공감하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예상하는데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가야죠! 이번 노래는 두 분 사연에 맞게 1235번님께서 신청해주신 영화 &lt;위대한 쇼맨&gt;의 OST <b>This Is Me</b>, 짧게 듣고 가실게요.</p> <p>노래는 게스트님께서 나와서 불러주시겠습니다!</p> <p><b>(슬라이드 4, #4 노래)</b> 노래: <b>This Is Me (0:00~1:01)</b></p> <p>가사:</p> <p>어둠이 낮설지 않아 매일 작아져 무거운 왕관 아래 권문세족의 토지 욕심 해결해 해야해 이 나라의 왕은 나니까</p> <p>전민변정도감을 설치 노비들은 원래 자리로 모두 돌려 놓아</p> <p>아픈 시련이 내게 닥쳐도</p>	<p>왕의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왕으로서 다시 일어나야한 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담은 신청곡</p>



	<p>톡 톡 톡 채로 일어나야 해 고려의 백성의 왕은 오직 나니까 바로 나</p>	
<p>퀴즈</p>	<p><b>DJ:</b> 네~. 정말 인상깊은 노래네요. 다음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퀴즈가 있습니다! 맞추신 분께는 상품이 있는데요~. 모두 최선을 다해서 퀴즈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p> <p><b>(#5 노래) (슬라이드 5)</b></p> <p>보조진행(준용): 공민왕과 정조는 공통점이 많아 서로 비교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두 인물은 시대도 환경도 달라 차이점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왕은 전쟁을 치렀고 다른 왕은 평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정답을 맞추기 앞서 힌트로 두 왕의 인터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p> <p>공민왕(은수): "짐은 원나라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 땅을 관할하던 쌍성총관부를 수복하고 요동을 정벌했지. 그땐 잘 나갔었는데...홍건적이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는 고생도 많이 했어. 원래 난 미술과 음악을 좋아하는 평화로운 사람인데 치세 내내 전쟁만 하다 끝난 듯 해."</p> <p>정조(태성): "아이구 난 노론과 싸우고 탕평책 쓰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형님 얘기 들으니 그래도 평화의 시대를 산 내가 훨씬 나은 것 같네요."</p> <p>보조진행(준용):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전쟁을 치른 왕은 과연 둘 중 누구일까요?</p> <p style="text-align: center;">(정답 맞추기 진행)</p> <p><b>(노래 #5 off)</b></p> <p>보조진행(준용): 네 정답은 바로 공민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 주셨네요. 상품은 수원 화성에 있는 주막 4인 식사권입니다. 사용기한은 1800년 까지입니다.</p>	<p>퀴즈/ 공민왕과 정조의 차이점 소개</p>
<p>클로징</p>	<p><b>(슬라이드 6)</b></p> <p><b>DJ:</b> 네~ 이렇게 사연, 인터뷰를 통해 공민왕과 정조! 만나보았습니다. 이분들 포함, 저희 모두 힘든 일 하나쯤은 겪고 살잖아요? 기 죽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여러분답게, 씩씩하게 멋진 하루를 보내세요</p> <p>지금까지 열한시 사십오분은 오찬시간이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p>	

